

◇의인성 식도파열

김영진, 이철주, 소동문, 류한영, 노환규, 문광덕, 최호, 김정태, 강준규,
홍준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식도 파열은 합병증 및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특히 내시경적 시술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인성 식도파열의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로 환자의 합병증과 사망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1994년부터 1998년동안 의인성으로 식도가 파열되었던 5명을 고찰하여 손상 기전, 임상 양상 및 앞으로 발생하게 될 환자들의 치료 방침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내시경적 시술중 발생한 식도파열 환자중 의무기록이 정확하고 추적 관찰이 용이했던 5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기존의 식도질환, 식도 파열후 수술까지 걸린 시간, 합병증, 수술방법, 수술후 재원기간, 결과를 관찰하였다.

결과 : 나이는 29세부터 64세로 평균42.6 세 였으며 남자 3명, 여자 2명이었다. 식도 파열후 수술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평균6.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술방법은 2례에서 일차적 식도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2례는 일차적 식도 적출술 후 6주후 위를 이용한 식도 재건술을 시술하였고 1례는 일차적 식도적출술 후 6주후 대장을 이용한 식도 재건술을 시술하였다. 합병증은 2례에서 발생하였으며 1례에서 문합부위의 협착, 다른 1례는 대장을 이용한 식도 재건술 후 대장의 괴사로 종격동염의 발생이 있었다.

결론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치험한 의인성 식도파열 5례중 수술후 사망은 없었으며 2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의인성 식도파열 환자의 합병증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및 진단후 빠른 시간내의 수술적 조치가 필요하며 수술 및 처치는 기존의 식도질환과 식도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책임저자:김영진(아주대학교) 발표자:김영진(아주대학교)